INAUGURAL EXHIBITION

GRAE_IT
ART SPACE

OUI, ENTREZ

그래, 주저 말고 들어와

FOUR ARTISTS

SASCHA NORDMEYER
CLAUDE TÉTOT
ANTOINE POUPEL
SUNMI KIM

14 NOV — 31 DEC 2026

OPENING / 14 NOV 2026 · 15: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8가길 24

CURATED BY JEONGMIN DOMISSY-LEE × GRAE_IT

그래, 주저 말고 들어와

어떤 말은 짧지만, 그 말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다.

'그래.'

그 쉬운 한마디가 유난히 간절했던 때가 있다. 마음을 꺼내놓았을 때,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 했을 때. 어쩌면 그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길 바랐을 때.

서툰 마음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도, 내가 품고 있는 꿈도. 모두 설명하고 증명하기 전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주길 바랐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 나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GRAE_IT은 오래 기다렸던 그 말을 이제 먼저 건네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 그런 생각도 가능하지.
그래, 지금의 너로 와도 좋아.

그 마음으로 처음 문을 여는 자리에 네 명의 작가를 초대한다.
앙투안 푸펠, 클로드 테토, 사샤 노르메이어, 김선미는 서로 다른 재료와 방식으로 각자의 작업 세계를 펼친다. 빛과 물질, 색과 여백, 선과 공간을 다루며 저마다의 고유한 언어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

네 작가의 작업을 함께 소개하는 것은 GRAE_IT이 품은 마음을 펼쳐 보이는 첫걸음이다. 각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존중하고, 그 세계들이 만나 이루는 풍성한 대화를 반갑게 맞이하는 일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건네고 싶다. 예술을 잘 몰라도, 느낌을 정확한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좋다.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속도로 작품을 만나기를 바란다.

한때 간절히 기다렸던 한마디가 이제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인사가 된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맞이하며, GRAE_IT은 첫 문을 연다.

그래, 주저 말고 들어와.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만남을 기획해주신 이정민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규영 | GRAE_IT 대표

이정민 CURATOR / ART CRITIC

이정민(Jeongmin Domissy-Lee)은 프랑스 파리와 아비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문화 전문가이다. 한국 태생으로, 지난 15여 년간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아트 컨설팅, 전시 기획, 미술비평을 아우르며 작품과 작가의 국제적 교류와 그 지평을 넓혀왔다.

소르본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에콜 뒤 루브르(École du Louvre)에서 현대미술을 수학한 그녀는 예술과 언어, 문화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작가와 작품을 다층적으로 바라보며, 분석적 시선과 미적 감각으로 작품의 조형 언어와 의미를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어낸다.

프랑스와 해외에서 전시와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비평과 글쓰기를 이어가며 다양한 작가·갤러리 미술관과 협업해왔다. 이를 통해 작품과 작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담론이 국경을 넘어 만나는 문화적 접점을 모색하고, 서로 다른 예술적 장면이 교차하는 가능성을 열어왔다.

동시대 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정민은 자신이 주목하는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을 수집하며, 특히 예술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 '작품의 이동을 또 다른 만남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활동 전반을 이끄는 중요한 관점이다.

함께 여는 여정

샤를 페팽(Charles Pépin)은 만남을
“내가 미리 그려온 생각보다 더 강한 현실과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만남은 예기치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의 궤적을 바꾸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번 전시는 바로 그러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지하고 소장해 온 네 작가와 그들의 작품, GRAE_IT를 이끌어가는 대표님의 시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큐레이션을 맡겨주신 믿음이 하나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아틀리에를 떠나온 작품들이 이곳에서 다시 길을 이어가며 또 다른 시선과 감성,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기 바랍니다.

기꺼이 공간을 열어주시고 함께해주신 신뢰에 감사드리며, 이제 막 시작된 이 아름다운 여정이 또 어떤 만남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Antoine Poupel

FRANCE

—

Photography in flux.

앙투안 푸펠은 40여 년간 사진의 물질성과 지각의 경계를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그에게 사진은 대상을 기록하는 매체를 넘어, 빛과 물질이 만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실험의 장입니다.

인화 과정에 직접 개입해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 흔적을 더하고, 이를 통해 사진의 표면을 회화적 화면으로 확장합니다. 사진의 재현성과 회화의 물질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통제와 우연이 빚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이미지가 탄생합니다.

SELECTED EXHIBITIONS & FAIRS

MAJOR ART FAIRS
Art Paris
Paris Photo

PUBLIC COLLECTIONS
Maison Européenne de la Photographie (MEP)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Tokyo Metropolitan Museum of Photography
Chengdu Contemporary Image Museum



Claude Tétot

FRANCE

—

Rhythm withi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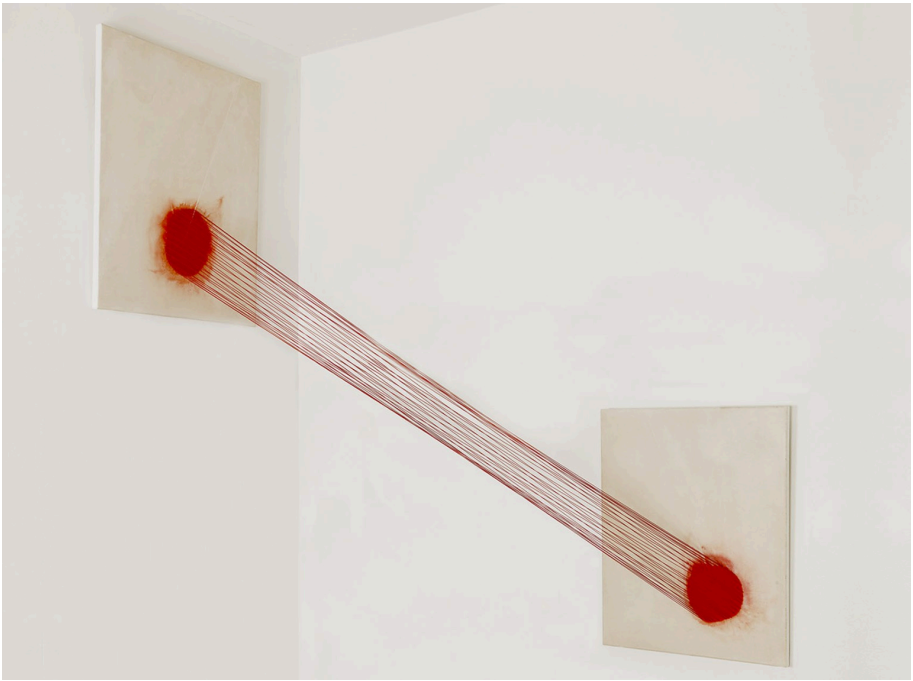
클로드 테토는 지난 30여 년간 표현주의, 기하학적 추상, 미니멀리즘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회화 언어를 구축해왔습니다. 자유로운 붓질과 정교한 윤곽선, 형광빛 색채와 흰 여백은 충돌과 조화를 거듭하며 화면에 섬세한 리듬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에게 여백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구성을 조직하고 형태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힘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열어두는 그의 회화는 관람자를 감각과 사유가 교차하는 경험으로 이끕니다.

SELECTED EXHIBITIONS & FAIRS

MAJOR ART FAIRS
FIAC
Art Paris
Art Brussels
Drawing Now

PUBLIC COLLECTIONS
Pinault Collection
Musée d'arts de Nantes
FNAC
FRAC Auvergne



Sunmi Kim

KOREA / FRANCE

—

Between plane and space.

김선미의 작업은 보이는 것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감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캔버스에 삽입되거나 두 화면 사이를 팽팽하게 잇는 실은 선이자 흔적으로, 관계, 거리와 연결, 연속과 단절을 가시화합니다.

평면에 깊이와 부피를 만들어내며 회화가 공간으로 확장되는 이러한 중간적 상태를 작가는 '2.5차원'이라 부릅니다. 빛과 관람자의 위치, 몸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작품은 익숙한 공간을 천천히 바라보고 감각하는 경험의 장으로 전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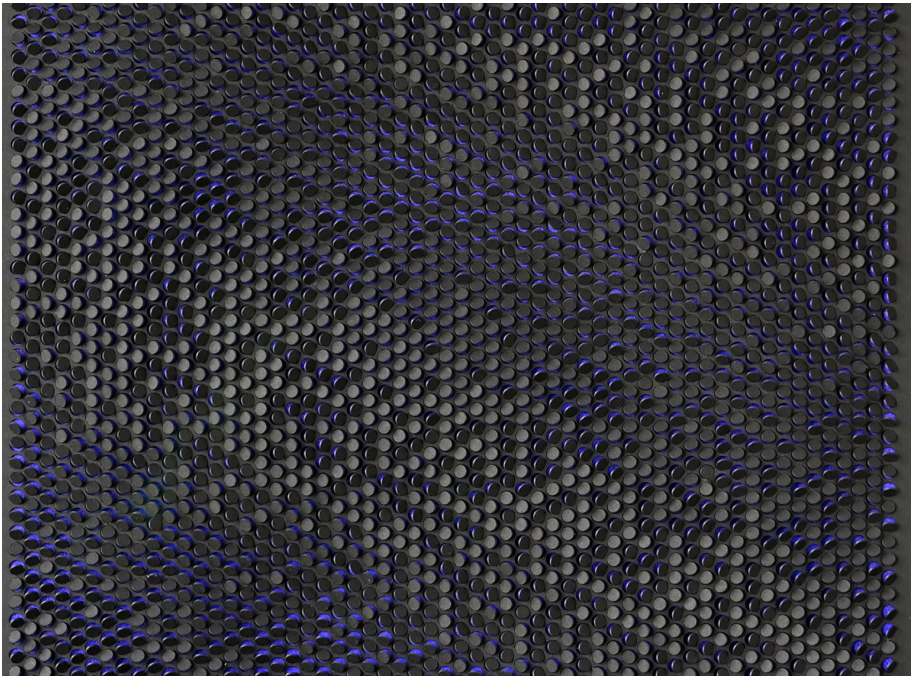
SELECTED EXHIBITIONS & FAIRS

MAJOR ART FAIRS

Art Paris
Moderne Art Fair
Art Miami
Art Palm Beach
Luxembourg Art Week

INSTITUTIONAL EXHIBITIONS

Monnaie de Paris
Musée des Beaux-Arts de Bernay
Musée Bernard Boesch



Sascha Nordmeyer

FRANCE / GERMANY

—

Light becomes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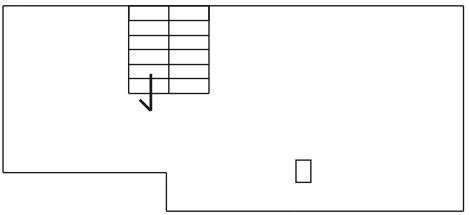
샤샤 노르메이어는 빛을 재현하기보다, 빛이 드러나는 조건을 설계하는 작가입니다. 종이와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빛과 지각의 관계를 탐구하며, 관람자의 위치와 조명에 따라 화면은 끊임없이 다른 형상을 드러냅니다.

대표 연작 〈Espace-Temps〉에서는 종이를 정교하게 절개하고 접어 만든 작은 반사면들이 빛을 포착하고 반사합니다. 엄격한 시스템과 손의 개입이 빚어내는 미묘한 차이는 정적인 화면에 움직임을 부여하며, 작품을 살아있는 감각의 장으로 이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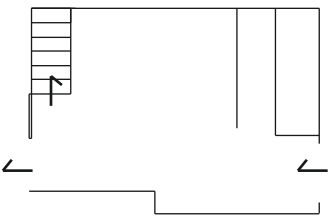
SELECTED EXHIBITIONS & FAIRS

MAJOR EXHIBITIONS
MoMA New York
Castello Sforzesco Mi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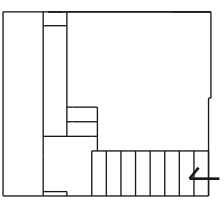
MAJOR ART FAIRS
Art Paris
Moderne Art Fair
FRIEZE SEOUL



3F
MAIN
GALLERY



2F
ENTRANCE
INFORMATION
DESK



1F
LOUNGE &
TERRACE

작품은 전 층에 걸쳐 전시되며, 3층에 메인 갤러리가 자리합니다.

GRAE_iT
ART SPACE